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월가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편자의 존재론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철학사의 핵심적 쟁점 중 하나이다. 유명론은 보편자가 다양한 개별자들에 대한 공통적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에 반해 플라톤적 실재론은 보편자가 사유 외부에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며 독립적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후설은 『논리연구』에서 모든 형태의 유명론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유명론과 실재론의 유구한 대립을 상기하면 후설이 실재론 진영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후설의 본질 이론은 플라톤적 실재론으로도 귀속되지 않는 독자적 입장을 정립한다.

후설에 따르면 종(種)과 같은 일반자를 둘러싼 오해는 두 가지 실체화에서 비롯된다. 종의 실재적 현존을 사유의 바깥에 가정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실체화이고, 종의 실재적 현존을 사유의 안에 가정하는 것이 심리학적 실체화이다. 플라톤적 실재론에서는 종이 사유 외부에 초시간적으로 현존한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이 도입되고, 로크와 같은 근대 추상 이론에서는 종이 의식 내부에 현존한다는 심리학적 가정이 도입된다. 후설은 심리학적 실체화에 대해, 의식 내부가 의식 외부와 마찬가지로 실재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오류라고 비판한다. 의식은 시간성을 지니므로, 이념적 대상이 의식 내부에 현존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시간적 존재가 된다. 후설에 따르면 실재적 존재와 시간적 존재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외연이 동일하기에, 비시간적인 이념적 대상은 시간성을 지닌 의식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자는 사고 체험의 실재적 성분이 아니라 사유에 의해 지향되는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후설이 유명론에 반대하면서도 전통적 실재론을 주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대상과 실재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데에 있다. 후설에 따르면, 대상이란 참된 진술의 주어로서 정의되는 것이지 실재적 존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음 계열 속의 음 성질 C, 수 계열 속의 수 2, 기하학적 형성물의 이념 세계 속의 도형 원(圓)은 각각의 이념 세계 속에서 대상이지만, 이때 이념 세계는 실재적 세계가 아니다. 이념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지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 설정이며, 후설에게 본질은 이념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지,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형이상학적 또는 심리학적 실체화에 의해 해명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후설이 반유명론의 입장에서 취하는 것은 본질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실재론이 아니라, 본질을 인식의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실재론이다.

후설은 본질의 위계 구조에서 형상적 독특이라는 고유한 개념을 정립한다. 형상적 독특은 유(類)와 종의 종차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본질로서, 자기 위에 상위의 유를 필연적으로 가지되 자기 아래

에는 하위의 유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 본질이다. 후설은 구체자가 자명하게도 형상적 독특이라고 규정하는데, 구체자란 절대적으로 자립적인 본질로서 '여기 이것'이라 지시될 수 있는 개별자가 사태적 본질로 지닌 것이다. 여기서 형상적 독특은 개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서 파악되는 특정한 형상이다. 이를테면 눈앞의 루비에서 직관되는 '이 루비의 붉음'은 루비라는 사물이 아니라 내용적이며 추상적인 본질이자 형상적 독특이다. 한편, 하나의 구체자에는 서로 다른 유와 종의 분리된 체계에 속하는 복수의 형상적 독특이 연결되어 포함될 수 있다. 형상적 독특은 본질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형상적 독특이 없다면 개별적 대상에서 특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본질 획득의 구체적 방법인 자유 변경에서 형상적 독특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 변경은 하나의 출발상에서 인도받아 변경체들을 생성하고, 변경체들의 중첩하는 일치 속에서 불변하는 일반적 형식을 본질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때 변경체들의 생성은 본질에 대한 사전적 앎을 전제하지 않으며, 출발상으로서의 사실에 의해 인도된다. 가령 하나의 음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다른 음들을 자유롭게 변경해 나갈 수 있으나, 음으로부터 색의 다양체로 범례를 전환할 수는 없다. 음은 색의 범례가 될 수 없으며, 음으로부터 색이 인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별적 대상이 형상적 독특임을 본질 직관 이전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 대상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무엇임은 사실로서 알고 있다. 자유 변경을 거쳐 본질을 직관하게 되면 눈앞의 사실이 비로소 형상적 독특으로 인식되는데, 형상적 독특은 늘 '여기 이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본질 직관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본질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후설은 유명론에 반대하면서도 본질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실재론이 아닌, 본질을 인식의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
- ② 후설은 의식 내부에 현존하는 것이라면 시간적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비시간적 이념적 대상이 의식 내용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 ③ 후설은 이념적 대상이 이념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자라고 봄으로써,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지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한다.
- ④ 형상적 독특은 개체 자체가 아닌 개체에서 파악되는 특정한 형상이므로, '여기 이것'과 형상적 독특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 ⑤ 자유 변경에서 하나의 음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음으로부터 색의 다양체로 범례를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 변경에서 변경체들이 출발상의 사실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그 사실 속에 형상적 독특이 이미 명시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② 형상적 독특이 본질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동일한 출발상에서 출발한 자유 변경은 출발상에 포함된 모든 형상적 독특에 대응하는 본질을 동시에 산출한다.
- ③ 구체자가 자명하게도 형상적 독특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구체자에서 파악되는 형상적 독특은 그 구체자가 속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유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 ④ 형상적 독특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자기 아래에 하위의 유를 가질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의 유에만 속해야 한다.
- ⑤ 음으로부터 자유 변경을 시작한 경우 색의 변경체를 생성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구체자에 포함된 형상적 독특들이 서로 다른 유와 종의 체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팔레트 위에 놓인 진홍색 물감 X를 관찰한다. ㉠갑은 X의 색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유 변경을 시도하여, 주홍, 선홍, 자주 등을 변경체로 생성한 뒤 '붉음'의 본질에 도달했다. 이어서 ㉡갑은 다시 X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점성(粘性)을 지닌 유화 물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수채 물감, 아크릴 물감 등을 변경체로 떠올렸다.

- ① ㉠에서 갑이 주홍, 선홍, 자주를 변경체로 생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붉음'이 색 일반이라는 최고유에 속하는 유일한 하위 유이기 때문이다.
- ② ㉠을 거쳐 '붉음'의 본질에 도달한 이후에는, X에서 직관되는 '이 물감의 진홍빛'은 자유 변경 없이도 다른 모든 붉은 대상에서 동일하게 직관된다.
- ③ ㉠에서 갑이 X를 출발점으로 삼아 변경체를 생성한 것은, 본질에 대한 사전적 앎에서 인도된 것이므로, 본질 직관 이전에 형상적 독특이 이미 인식된 것이다.
- ④ ㉠을 거쳐 '붉음'의 본질에 도달한 이후에야 X의 진홍빛이 형상적 독특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형상적 독특이 '여기 이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 변경을 거친 뒤에야 본질로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 ⑤ ㉠과 ㉡은 동일한 대상 X에서 시작하므로, ㉡에서 변경체들의 중첩을 통해 도달할 본질은 ㉠에서 도달한 '붉음'과 동일한 상위 유에 속해야 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구 작품에 등장하는 나폴레옹과 같은 실제 이름은 일상 맥락과 동일하게 실제 대상을 가리킬까? 비-예외주의는 이에 긍정한다. 지시체를 결정하는 언어적 규약은 허구적 맥락이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화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려는 의도에 기대는 직접 지칭 이론이든, 연관된 기술구의 만족을 따지는 간접 지시 이론이든 그 지시체 결정 메커니즘은 허구 텍스트 내부에서도 일상과 동일하게 관찰된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통해 나폴레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려 했다면, 소설 속 나폴레옹은 실제 인물과 지시적 관련성을 맺어야 한다. 이를 단지 실제 인물과 인지적으로 유사한 대상이 표상되어 있을 뿐이라는 인지적 관련성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실존 인물을 호출한 저자의 창작 의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예외주의자들은 허구 맥락만의 특수성을 근거로 실제 이름이 허구적 대용물을 지칭하거나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이한 세 논변을 제시한다.

첫째, 모토아키는 문학적 풍자나 왜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허구적 대용물 이론을 주창한다. 그는 작가가 실존 인물을 풍자하고자 고안한 이름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 인지적 유사성만을 맺는 허구적 대용물을 지칭한다고 본다. 풍자의 특수 맥락에서 대용물 상정이 필수적이라면, 이론적 간결성을 위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실제 이름 역시 예외 없이 대용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허구 속 정보가 현실의 예측이나 행동을 위한 내기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내기 민감성의 부재가 곧 지시적 단절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성수는 이러한 확장이 범주 착오라고 반박한다. 풍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되어 도입된 이름은 애초에 일상적 지시 의미가 배제된 허구적 이름일 뿐이다. 화자가 언어 관습을 준수하여 실제 대상을 지칭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지녔음에도, 단지 텍스트가 허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도를 압도하여 대용물 지칭으로 변질시킬 필연적 규약은 없다. 특정 정보가 일상에 유입되지 못한다고 지시체 자체가 단절되는 않는다. 흥미를 위해 거짓 정보를 부여하여 내기 민감성이 상실되었다 한들 지시적 연속성은 무력화되지 않는다.

둘째, 볼틀리니는 창작을 일종의 척하기(pretense) 놀이로 파악하며 척하기 관점 안팎을 구분한다. 소설 내부에 쓰인 척하기 내부 문장에서 실제 이름은 실제 대상을 지시하지만, 놀이 밖에서 텍스트를 기술하는 척하기 외부 문장에서는 허구적 대용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모순의 경제성 원리이다. 척하기 내부에서는 참가자의 모순 회피 의도가 공적인 언어 관습에 가로막혀 불가피하게 허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볼틀리니는 불필요한 모순이 척하기 관점 밖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므로, 외부 문장에서는 본래 의도를 존중하여 이름들이 서로 다른 허구적 대용물들을 분할 지시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박성수는 경제성 원리가 텍스트의 의미론적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혼재시켰다고 비판한다. 작가가 무심코 모순된 진술을 남겼을 때, 경제성 원리에 따르면 외부 평론에서는 모순을 피하고자 텍스트를 작가의 애초 의도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적 비평에서 독자는 의미론적 모순을 그대로 직시하며 이를 작가의 서술적 실수로 지적할 뿐이다. 척하기 내부에서 화자의 의도가 언어 관습에 지배당함을 인정했다면, 척하기 외부에서도 모순이 인위적 소거 없이 노출되어야 한다.

셋째, 가르시아-카핀테로는 공-지칭어 논변을 제시한다. 그는 허구 맥락에서 실제 이름에 연루되는 기술구가 허구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실존하는 동일인인 두 사람을 소설이 별개의 인물로 등장시킨 경우, 비-예외주의를 따르면 두 이름은 결국 동일한 실제 대상을 가리키는 공-지칭어이므로 동일한 명제를 표현하게 된다. 그는 이것이 독자에게 대상을 다르게 상상할 것을 요구하는 허구적 진술 본연의 목적을 파탄 낸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박성수는 이 비판이 직접 지칭 이론을 전제한 밀주의적 비-예외주의만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일축한다. 비-예외주의가 기술주의를 수용할 경우, 두 이름이 지시체가 같더라도 일상 맥락에서 부여된 서로 다른 고유 기술구를 허구 맥락에서도 유지하므로 애초에 다른 명제를 표현하게 되어 상상 내용이 성공적으로 분리된다. 나아가 두 이름이 동일 명제를 표현함을 인정하는 밀주의적 비-예외주의라 할지라도, 프레게의 퍼즐에 대한 기존 해법을 차용해 지시적 동일성은 유지하되 허구 연산자 아래서 독자가 명제를 취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함으로써 서사적 혼란을 방어할 수 있다.

4. 윗글에 제시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토야카는 내기 민감성 부재를 들어 대응물 이론의 일괄 적용을 제안한다.
- ② 볼톨리니는 내부 모순의 외부 전이를 막고자 분할 지시 해석을 요구한다.
- ③ 가르시아-카핀테로는 상상 규정을 위해 허구 기술구의 독립을 전제한다.
- ④ 볼톨리니는 모순의 외부 노출이 경제성 원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한다.
- ⑤ 비-예외주의자는 서사적 효과를 위해 명확한 지시적 관련성을 요구한다.

5. 윗글을 바탕으로 예외주의 논변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볼톨리니 비판에서는 외부 문장의 언어 관습이 화자의 의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② 모토야카 비판에서는 내기 민감성 부재가 지시 단절은 아님을 들어 두 이름의 의미론적 동일성을 증명한다.
- ③ 카핀테로 비판에서는 지시 원칙과 기술주의 결합으로 두 이름이 고유 기술구를 유지케 해 동일 명제 전제를 깬다.
- ④ 볼톨리니 비판에서는 작가 의도를 복원하는 외부 재해석이 일상적 문학 비평 실천에 부합함을 논증한다.
- ⑤ 카핀테로 비판에서는 밀주의 해법을 빌려 공-지칭어가 다른 지시체를 가리키도록 의미값이 변환된다고 역설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안 역사 소설가 K는 고대 로마의 실존 인물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다루는 『로마의 그림자』를 집필했다.

(상황 1) K는 서문에서 “이 소설의 인물들은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소설적 재미를 위해 카이사르가 실제 역사와 달리 ‘브리튼 북부에서 마법을 배웠다’는 비현실적 설정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상황 2) K는 옥타비아누스와 아우구스투스가 역사적으로 동일 인물임을 알고 있었으나, 독자에게 극적 혼란을 주려 의도적으로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세력을 이끄는 적대적 인물로 묘사했다.

(상황 3) 소설 7장에서 K는 집필 중 무심코 “카이사르는 마법을 모르는 평범한 인간으로 죽었다”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자신이 부여한 앞선 설정, 즉 위대한 마법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술적 실수였다.

비평가들은 출간 후 척하기 외부 관점에서 다음의 평론 문장들을 작성했다.

- (가) “『로마의 그림자』에서, 카이사르는 마법을 배웠다.”
- (나) “『로마의 그림자』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아우구스투스는 서로 적대적이다.”
- (다) “『로마의 그림자』 7장의 서술은 텍스트 내부 설정과 충돌하는 명백한 서술 오류이다.”

- ① 모토야카라면, K가 명시적 의도를 밝혔으므로 (상황 1)처럼 왜곡된 이름이더라도 (가)의 카이사르는 실제 대상을 향한 지시적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겠군.
- ② 카핀테로라면, 두 이름이 동일 명제를 표현한다는 비-예외주의를 따를 경우 K가 의도한 (나)의 서사적 혼란과 분리 상상 요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겠군.
- ③ 볼톨리니라면, (상황 3)의 모순 전이를 막기 위해 외부 관점에서 카이사르를 이전과 다른 대응물로 분할 지시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박성수라면, (상황 3)의 내부 모순을 밖에서 (다)처럼 서술 오류로 직시하는 행위가 텍스트의 의미와 작가 의도를 구분하는 합리적 비평 실천이라고 인정하겠군.
- ⑤ 박성수라면, (나)가 동일 명제임을 인정해도 독자가 이를 취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인물 간 적대적 설정이 상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방어하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배선과 층간 연결 통로인 비아의 간격은 좁아지고, 접합부에서의 전류 분포 불균일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 일부 구간에 전류가 몰리면 전자기동이나 국부 발열 같은 신뢰성 문제가 커진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주로 재료를 바꾸거나 접합부 내부의 보호막 구조를 조정하고, 다중 비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전류밀도 영역의 열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접합부의 금속이 모두 전도에 같은 비중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를 거의 묻지 않는다. 한편 저전류밀도 영역은 대개 ‘남아 있는 금속’으로만 취급되어 왔을 뿐, 제거 가능한 설계 자원으로 읽히지 않았다.

문제는 실제 접합부에 남아 있는 금속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류 전달에 거의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한 영역을 덜어내도 전체 저항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다. 배선 간격을 다시 확보하여 더 높은 집적도를 달성하는 설계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은 금속의 총량을 보존했는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실제 전류 경로에 속하는가에 있다. 이 질문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보다 “어디로 흐르는가”를 먼저 묻는다는 점에서 종래의 직관과 어긋난다.

이를 보기 위해 연구자는 배선-비아-배선 구조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해석에는 특정 크기의 격자망, 곧 메쉬를 설정하고 수평 방향으로 3V의 전압을 가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 비아 면적의 차이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게 하려고 10×10μm 비아를 기준으로, 면적은 같되 형상비만 다른 20×5μm, 5×20μm 비아를 함께 비교하였다. 여기서 따지고자 한 것은 “면적이 크다”가 아니라, 같은 면적이라도 전류가 통과하는 방향과 통로의 모양이 달라지면 실제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가였다. 즉, 형상비와 전류 방향성을 분리해 저항 변화의 원인을 찾으려 한 것이다.

해석 결과 전류는 접합부 전체로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금속 배선에서는 비아와 만나는 부근의 제한된 띠, 곧 전체 높이 중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전류가 집중되었다. 비아 내부에서도 전류는 단순히 수직으로 관통하지 않고, 입구와 출구를 잇는 비스듬한 경로를 따라 몰렸다. 통상적으로 저항(R)은 경로의 길이(L)에 비례하고 단면적(A)에 반비례한다는 저항식 $R=\rho L/A$ 는 A를 기하학적 전체 단면적으로 둔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같은 높이와 폭의 배선이라도 실제 전도에 기여하는 것은 전체 단면이 아니라 유효 단면이며, 전체 금속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전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접합부 저항을 전체 단면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실제 전류가 지나는 핵심 통로와 주변의 저활용 구역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배선 부분에는 유효 높이를 반영한 단면적을, 비아 부분에는 대각 경로 길이를 반영한 저항식을 두고, 경로 방향과 단면 변화에 따른 보정 항목을 더해 등가 저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얻은 계산값은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와 전 구간에서 유의미한 수준 이하의 오차로 부합하였고, 일부 조건에서는 그 오차가 더 작았다. 이는 접합부 저항을 좌우하는 변수가 남은 금속의 총량 자체라기보다, 전류가 실제로 몰리는 경로의 길이와 그 경로가 확보하는 유효 단면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저전류밀도 영역은 금속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저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곧바로 “바깥쪽 금속은 많이 잘라낼수록 좋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제거가 허용되는 것은 전류 집중 경로 밖에 놓인 저밀도 영역인 경우에만이며, 제시된 레이아웃 최적화도 배선의 끝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중 경로에 걸치는 영역까지 덜어내면 저항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비록 이 기법이 공정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확보된 이렇게 확보된 배선 간격은 추가 신호선 배치나 전력선 보강 같은 다른 설계 선택으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 면적의 세 비아를 비교한 것은 비아 면적 확대의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 ② 기존 연구의 한계는 저전류밀도 영역 제거에만 치중하고 신뢰성 문제를 외면했다는 데 있다.
- ③ 저전류밀도 영역은 저항 기여는 작더라도 전자기동을 직접 유발하므로 우선 보강 대상이 된다.
- ④ 접합부 저항을 설명하는 한, 남은 전체 금속량보다 전류가 실제로 집중되는 경로의 길이와 유효 단면이 더 중요하다.
- ⑤ 설계 레벨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배선의 끝부분이 아니어도 같은 제거가 허용됨을 뜻한다.

8.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한 가정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후속 설계에서 배선의 전체 높이와 폭은 그대로 두되, 전류가 집중되는 유효 높이는 기존보다 더 커졌고, 비아 내부의 주 전류 경로는 덜 비스듬해져 실제 경로 길이가 짧아졌다고 하자.

- ① 전체 기하학적 단면적이 그대로라면 등가 저항은 변하지 않고, 제거 가능한 영역만 늘어난다.
- ② 배선부와 비아부의 등가 저항은 모두 낮아질 수 있으며, 제거 가능한 외곽 영역은 오히려 줄 수 있다.
- ③ 비아의 실제 경로가 짧아질수록 전류는 더 급격히 집중하므로 전체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 ④ 유효 높이가 커질수록 전류는 더 좁은 영역에만 몰리므로 제거 가능한 영역도 함께 늘어난다.
- ⑤ 저항 감소 여부는 전체 금속 부피가 증가했는지에 의해 우선 결정되므로, 유효 높이 변화는 부차적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업체가 검토하는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 패키지 기관 업체가 패드-마이크로비아 접합부를 해석한 결과, 전류는 패드 바닥면에 인접한 얇은 구역과 비아 입구의 안쪽 모서리에서 출구 반대편 모서리로 이어지는 사선 통로에 주로 모였다. 반대로 패드 윗면 가장자리와 비아 외측 둔각부는 활용도가 낮았다. 업체는 다음 네 가지 사안을 검토한다.

사안	적용 위치	가공 계획
ㄱ	선로 종단	패드 윗면 가장자리와 비아 외측 둔각부만 줄인다.
ㄴ	선로 종단	패드 바닥면에 인접한 얇은 구역을 먼저 줄이고 남은 금속을 평탄화한다.
ㄷ	선로 중간	패드 윗면 가장자리와 비아 외측 둔각부만 줄인다.
ㄹ	선로 종단	패드 윗면 가장자리는 남겨 두고 비아의 사선 통로 일부를 절제한다.

- ① 끝단 적용과 경로 보존을 함께 충족하는 것은 ㄱ뿐이다.
- ② 집중 구역을 일부 줄여도 되는 것으로 보면 ㄴ만 채택 가능하다.
- ③ 저밀도 외곽을 줄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ㄱ과 ㄷ을 함께 취할 수 있다.
- ④ 끝단 가공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ㄱ과 ㄹ을 함께 취할 수 있다.
- ⑤ 절제 범위가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ㄷ과 ㄹ을 채택할 수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효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최근 소비자 행동 연구는 소비자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여 자원을 배분하는가에 주목하며, 이를 크게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두 유형으로 대별한다. 물질소비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대상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며, 제품의 객관적 기능과 디자인에서 효용을 얻는 소비이다. 반면 경험소비는 여행, 공연 관람처럼 소비자가 행위를 통해 주관적 감정과 기억을 체화하는 소비를 가리킨다. 흥미로운 점은 두 소비유형이 쾌락적 적응의 측면에서 비대칭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험소비는 기억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자아정체성에 통합되므로 만족감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물질소비가 제공하는 효용은 객관적으로 비교가 용이하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익숙함이 빠르게 찾아와 쾌락적 적응이 신속히 발생하고 그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처럼 질적으로 상이한 두 소비유형에 대해 소비자가 내리는 의사결정과 그 평가는 단일한 지표로 수렴하지 않는다. 소비의 최종적인 후생은 지불한 비용 대비 결과가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인 구매만족도와, 소비를 통해 유발된 감정을 총망라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인 소비행복도로 엄격히 분리된다. 이 두 지표는 상관관계를 맺으면서도 항상 일치하여 움직이지는 않으며,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소비유형과 결합할 때 완전히 엇갈린 궤적의 비대칭적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

먼저,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도 비용 대비 효용의 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성향인 가격민감성을 살펴보자. 가격민감성이 높은 소비자는 소비 과정에서 투입 대비 객관적 산출을 중시하므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경험소비보다는 재화의 객관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소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다. 나아가 가격민감성은 소비유형과 결합하여 구매만족도를 강력하게 조절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가격민감성이 높은 소비자는 물질소비를 했을 때 자신이 지출한 비용 대비 실물 자산을 획득했다는 계산적 확신을 얻어 구매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반면에 경험소비를 선택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본질적 가치가 비용의 수치적 측정치와 무관하게 개인의 주관적 체험에 의존하므로, 가격민감성이 높아진다 해도 구매만족도의 유의미한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가격민감성이 구매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물질소비라는 조건하에서만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철저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 가격민감성이 개인의 전반적인 감정적 안녕감인 소비행복도에는 어떠한 조절효과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과 이미지를 통제하려는 성향인 자기감시성은 전혀 다른 조절 양상을 띤다.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성이 내포된 물질소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물질소비를 압도적으로 지향할 것이라는 직선적 기대를 품기 쉽다. 그러나 특정 소비유형 하나만을 결정해야 하는 제약 상황에 한정해 보면, 자기감시성의 고저가 물질소비나 경험소비에 대한 최초의 선택 확률 자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이 완료된 이후, 자기감시성은 소비유형과 결합하여 소비행복도의 크기를 결정적으로 조절한다. 두 소비유형 모두 자기

감시성이 높아질수록 소비행복도가 정적으로 증가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궤적은 확연히 다르다.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적 기준을 중시하므로, 타인과 공유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족이 큰 경험소비를 했을 때 물질소비보다 더 높은 소비행복도를 누린다. 반면 자기감시성이 높아지면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된다. 이들에게는 타인이 쉽게 알아차리고 평가할 수 있는 가시적 표상을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기감시성이 강해질수록 물질소비에서 얻는 행복도의 상승 폭이 경험소비에서의 상승 폭을 압도하게 되며,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두 소비가 산출하는 행복도의 우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교차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토록 역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내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자기감시성은 지출 비용에 대한 인지적 타당성을 따지는 구매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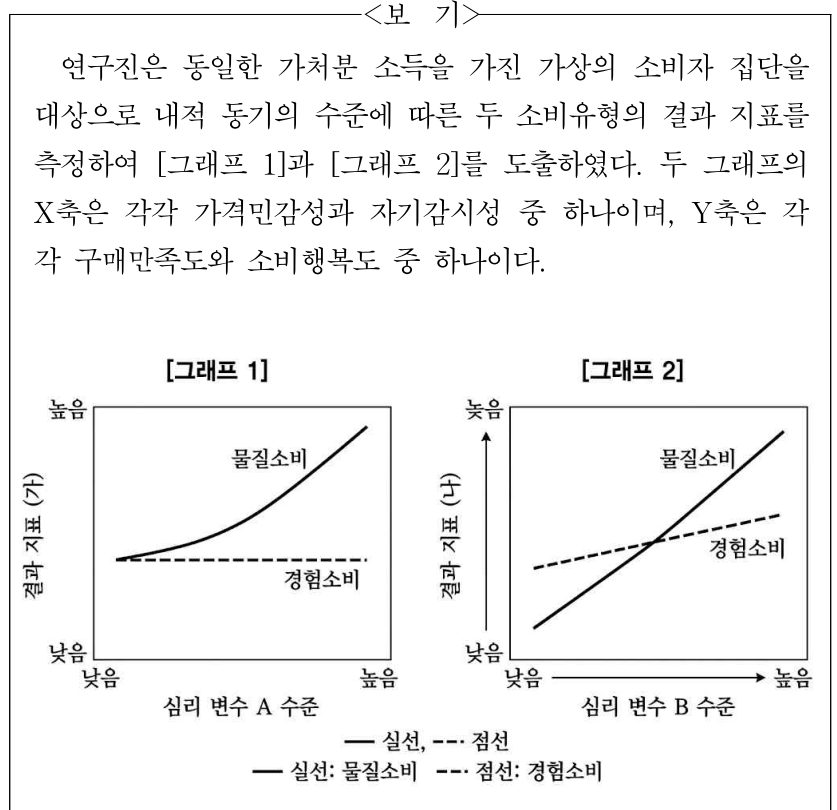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물질소비는 비교가 쉬워 경험소비보다 쾌락적 적응이 더디게 일어난다.
- ② 타인 시선을 의식할수록 물질소비의 최초 선택 확률이 경험소비를 압도한다.
- ③ 구매만족도와 소비행복도는 항상 동일한 궤적으로 증감하는 동조화를 보인다.
- ④ 가격을 따지는 경제적 동기는 물질소비 시 감정적 안녕감을 크게 증폭시킨다.
- ⑤ 가치가 빨리 감소해도 객관적 효용을 중시하면 인지적 평가는 상승할 수 있다.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 최초 선택 시 자기감시성이 차이를 못 만드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경제적 효용보다 일관되게 우선시함을 방증한다.
- ② 내적 기준을 따르는 소비자가 경험소비에서 더 행복한 것은 가격민감성 작동으로 구매만족도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 ③ 가격민감성의 구매만족도 증폭 기제는 소비 가시성에 따라 비대칭적이나, 이 조절효과가 소비행복도로 전이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승인을 위한 이미지 통제 성향이 강해질수록 구매만족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은 물질소비 시에 한하여 관찰된다.
- ⑤ 비용 계산에 덜 기민한 소비자의 높은 경험소비 행복도는 이성적 평가의 계산적 확신이 보상받은 결과로 환원할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래프 1]의 X축이 가격민감성이라면, 수평을 유지하는 점선은 기능적 속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비교가 용이하여 쾌락적 적응이 신속히 발생하는 소비유형을 나타낸다.
- ② [그래프 2]의 역전 교차 현상은, 비용 대비 효용 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중시되는 소비의 효용이 급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 ③ 두 그래프의 실선은 물질소비이며, [그래프 2]에서 X축 값이 낮을 때 점선이 상단에 있는 것은 타인 시선을 의식할수록 내적 체험에 몰입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 ④ [그래프 1]이 역전 교차를 동반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인지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원천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다.
- ⑤ [그래프 2]의 X축이 자기감시성일 때 실선이 점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은, 타인이 평가할 수 있는 가시적 표상의 확보가 주관적 안녕감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고유한 본성에 따라 정해진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고전 형이상학의 목적론은 근대 과학 혁명 이후 그 설명적 지위를 잃었다. 우주의 질서나 자연 현상은 이제 목적이 아닌 기계적인 인과율로 설명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큼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움직임을 유발했다는 목적론적 설명이 여전히 강한 유효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다윈성이 신봉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삶 전체로 확장하여 인간에게 단일한 목적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획일적인 억압으로 치부되곤 한다. 알래스더어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회의주의에 맞서, 누구나 좋은 삶을 원한다는 '실천적 합리성'을 규범적 본성으로 전제하면서도 다윈주의적 현실을 포용할 수 있는 목적론의 재건을 시도한다.

매킨타이어의 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대한 독창적 재해석에서 출발한다. 흔히 '텔로스(telos)'는 부나 명예,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나 아퀴나스의 지복과 같이 삶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탐색을 종결짓는 확정적인 상태나 특정한 내용적 목표와 동일시되곤 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에게 인간의 궁극적 텔로스는 특정한 목표 지점이 아니라, 전체 인생이 건설되는 특수한 형식 그 자체이다. 인간의 삶에는 직업적 성공이나 가족의 안락함 등 수많은 유한하고 특정한 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체 선의 위계질서 내부에서 각자의 자리를 점유한다. 어떠한 중대한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여생은 남게 마련이므로, 그 단일한 성취만으로 전체 삶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텔로스는 여러 선들과 동일한 질서 안에서 경합하는 일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선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화롭게 직조해 나가는 여정 자체로 규정된다.

좋은 삶의 형식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은 선의 위계질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탐구는 고립된 사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협동 활동인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 실천의 참여자는 돈이나 권력처럼 한 사람이 소유하면 타인의 몫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경합적인 외재적 선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주로 지적 성취나 예술의 미적 구현 등 활동 자체에 고유한 내재적 선을 추구하게 된다. 한 성원이 내재적 선을 진지하게 추구할수록 실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동선의 크기도 확대된다. 이러한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정의, 진실성, 용기와 같은 덕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여러 실천 영역이 요구하는 중대한 선들이 팽팽히 맞서는 비극적 딜레마가 유덕한 사람에게조차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기계적인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대한 자기-지식과 속한 전통에 대한 적합한 감각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분별하는 실천적 판단력이다. 덕을 갖춘 사람은 단지 어떤 결과를 선택하느냐를 넘어, 불가피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선에 대해서조차 깊은 도덕적 배려를 거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한다.

나아가 선에 관한 진지한 탐구는 삶을 파편화된 일화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단일한 서사적 통일성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인생 전체의 견지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한 선 관념을 어떠한 순간에도 일관되게 관찰하려는 지조와, 과거의 결끄러운 행적마저 부정하지 않고 삶의 서사로 수용하는 자아통합성이 필수적이다. 물론 탐색 과정에서 합리적 비판과 오류 교정을 거쳐 선의 우선순위는 언젠가 유연하게 개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는 선에

대한 합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 편이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자아통합성이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춘 선 관념의 진정한 개선인 경우에만 자아통합성은 온전히 지탱된다.

결국 텔로스를 향하는 삶은 주체의 내면을 넘어 타인에 대한 '해명 책임'의 완수로 직결된다.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맹목적인 삶이든 허용된다는 현대 자유주의의 통념은 매킨타이어의 지형에서 옹호될 수 없다. 무사태평하게 즉흥적 욕구만을 좇는 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사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공동체의 제도와 내재적 선을 누군가가 성실히 헌신하여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천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납득할 만한 좋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서사에 불과하다. 텔로스를 향하는 올바른 삶은 개인적 관점과 인간 일반적 관점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도덕적 삶의 구현이다.

13. 매킨타이어의 목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텔로스를 부단한 탐색 끝에 다다른 확정적 상태로 규정한다.
- ② 특정한 인생 목표를 성취한 이후의 여생에도 선의 탐구는 이어진다.
- ③ 실천에 내재적인 선을 진지하게 추구할수록 공동선도 함께 확대된다.
- ④ 관조나 지복과 같은 특정한 활동은 궁극적인 텔로스와 동일시될 수 없다.
- ⑤ 타인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삶도 해명 책임의 판단 대상이 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의 우선순위는 유연하게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 편의를 위해 원칙을 번복하는 경우에도 자아통합성은 온전히 보존된다.
- ② 텔로스의 탐색은 선의 위계질서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이므로, 성취한 내재적 선을 변함없이 고수하는 지조가 필수적이다.
- ③ 유덕한 자도 딜레마를 겪으므로, 전통에 대한 감각을 배제하고 오직 자기-지식에만 의존해 실천적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 ④ 공동체 부패를 막으려면, 구성원이 향유하는 내재적 선을 외재적 선으로 치환하여 재화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⑤ 포기해야 할 선에 대해 도덕적 배려를 거두지 않는 것은, 꺾그러운 행적마저 삶의 서사로 수용하는 자아통합성의 덕과 부합한다.

15.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의 K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재 과학자 K는 인류 지식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을 생의 유일무이한 최고선으로 삼았다. 그는 위대한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돌봄이 절실한 병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방치한 채 타국의 연구소로 홀연히 떠났다. 수십 년 뒤 그는 세기의 발견을 이루어내며 노벨상을 수상했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가족은 철저히 파탄 났다. 노년이 되어 귀국한 K에게 사람들이 과거 가족을 유기한 행위를 비난하자 그는 항변했다.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게 가장 궁극적인 선인 학문적 성취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어떠한 직접적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내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내 생애를 일관된 서사로 엮어주므로 나의 삶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K가 학문적 성취라는 단일 목적 달성에 평생을 바친 것은 딜레마 속에서도 특정 선에 대한 일관성을 지킨 것이므로, 지조와 자아통합성의 덕을 온전히 구현한 상태로 평가되겠군.
- ② K가 거머쥔 막대한 부와 명성은 본질적으로 경합적 성격을 지니는 외재적 선에 불과하므로, 공동체적 빛을 방기하고 이를 독점한 삶은 타인들 앞에서 합당하게 해명될 수 없겠군.
- ③ K가 인류 지식의 진보를 내세워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족을 방치한 과거 행적마저 삶의 서사로 온전히 통합해 낸 자아통합성의 성공적인 결과에 해당하겠군.
- ④ K가 타인에게 직접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근거로 내세운 항변은 물리적 침해만 없다면 사적 삶이 허용된다는 통념을 충족하므로 매킨타이어의 윤리학에서도 정당화되겠군.
- ⑤ 만일 K가 학문적 성취와 가족 부양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선의 위계질서를 확정하지 못하고 흔들린 이러한 태도는 텔로스를 향하는 탐색의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겠군.